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 '연체 급증'…8년 내 최고

1분기 대출 1034조 '사상 최대'…지난해 4분기 보다 연체율 0.35%↑

중·저소득층 연체 최고 1.8%…다중채무자 비중 71.3% '역대 최대'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충격과 경기 부진의 고통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가운데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금융권 연체율이 1%를 보이며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중·저소득층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거 돈을 끌어 쓴 결과, 자영업자 연체율 역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뛰고 있다.

더구나 이런 '자영업자 대출 대규모 부실' 사태가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분기 연체율 상승폭, 작년 4분기의 2배…연체액도 54% 급증=2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7000억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작년 3분기(1014조2000억원)와 4분기(1019조9000억원)에 이어 세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어섰고, 불과 3개월 사이 13조9000억원이나 더 불었다.

올해 들어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승 속도도 작년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는데, 작년 4분기(0.65%)보다 0.35%포인트 높다. 연체율 상승 폭도 지난해 4분기(0.12%포인트)나 3분기(0.06%포인트)와 비교해 크게 뛰었다.

1.00%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0.76%)를 웃돌 뿐 아니라,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1분기 6조3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나 늘었다. 증가율이 4분기(24.2%)의 두 배 이상이다.

◇ 저소득 자영업자 1분기 대출 3.1조 더 늘어 '역대 최대'=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작년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6%로 0.4포인트 올랐다.

이 계층의 연체율 1.6%는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3분기(1.7%) 이후 3년 반 만에 최고 기록이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1.8%)도 3개월 새 0.5%포인트 더 높아졌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020년 1분기(1.9%)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9%)도 2019년 3분기(0.9%) 이후 3년 6개월 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지만, 모든 소득 계층에서 자영업자의 대출은 줄지 않고 계속 더 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022년 4분기 119조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3조원으로 3조1000억원 불었다.

같은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713조9000억원→723조6000억원)와 중소득 자영업자(186조원→187조2000억원) 대출도 각 9조7000억원, 1조2000억원 더 늘었다.

저소득·고소득 자영업자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은 각 역대 최대 규모다.

◇2금융권 자영업자 연체율, 올해 1분기 약 1%p 뛰어=특히 비(非)은행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더 심각한 상태다.

1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 0.37%, 2.52%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와 비교해 은행에서 0.11%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포인트나 급등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9년 1분기(0.38%) 이후 4년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20년 2분기(2.59%)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별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자영자의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은행권에서 밀려나 더 높은 금리를 주고라도 2금융권에 매달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점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을 경고하는 위험 신호다.

1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37조5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2.4%(17조2000억원) 더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개월 사이 70.6%에서 71.3%로 커졌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고,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와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 1조3000억원, 74만원 느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올해 말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이 3.1%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취약 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신용등급)의 연체 위험률은 같은 시점에 18.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초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9' 출시 삼성전자는 26일 5K 초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9(S90PC)'을 출시했다. 뷰피니티 S9은 27형(68.4cm) 크기에 5K 초고해상도로 218 PPI의 뛰어난 화질을 구현한다. 최대 밝기 600니트를 지원하며, DCI-P3기준 최대 99%의 색 표현이 가능해 디자이너가 설계한 풍부하고 생생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수여하는 'CES 2023 혁신상(Innovation Awards Honoree)'을 수상한 뷰피니티 S9 출고가는 170만원이다. 삼성닷컴에서만 판매되며, 26일부터 사전 판매가 진행되고 7월 3일 정식 출시된다. 〈삼성전자 제공〉

"광주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광주경총 지정 촉구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호원 회장)는 26일 광주를 미래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경총은 "광주 자동차산업은 연간 72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 자동차 도시 중 한 곳으로 완성차 공장 2개를 보유한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며 "신청지역 외 주변 산단도 소부장 특화단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지난 3월 지정된 100만평 미래차 국가 산단과 빛그린 국가산단·진곡산단에 미래차 산업을 집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을 담았다.

신청지역은 진곡산단과 빛그린국가산단 등이다.

광주경총은 "하남·소촌·평동·첨단 등 광주 전역에 자동차산업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기업들 또한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주변 산단으로 특화단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가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소부장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세액 공제,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35만명 돌파

A/S 접수 등 절차 간편화

(주)귀뚜라미(대표 최재범)는 모바일 A/S 시스템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의 가입자 수가 35만 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보일러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 챗봇 기반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은 대기시간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어 전화 상담 방식의 불편함을 크게 개선했다.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A/S 접수 비율이 고객센터 전체 접수량의 30%를 소화하며 고객 편의와 상담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출시 이후 UI 개선과 서비스 절차 간편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은 ▲A/S 접수하기 ▲IoT조절기 설정 매뉴얼 ▲동파 방지 및 조치 등 고객들의 문의 빈도가 높은 내용에 대해 아이콘 메뉴 형태의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귀뚜라미보일러'를 입력해 채널 추가한 뒤 '챗봇 채팅'을 선택하면 된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보일러 관련 문의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더욱 신속하게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 고객의 경험과 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반영해 고품질의 서비스 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광주공판장, 경산 압량농협과 출하가격 보장제 협약

농협경제지주 광주공판장은 지난 23일 광주공판장에서 경남 경산 압량농협과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출하가격 보장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 등락에도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지지와 지속적 출하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82.20 (+12.10)
↑	코스닥	879.50 (+4.66)
↓	금리(국고채 3년)	3.568 (-0.041)
↑	환율(USD)	1306.30 (+2.10)